

# '해동의 神筆' 김생 "스님이었다"

충주불교연 · 충주시 · 김생연구회

## 金生寺터 문화재 지정 복원 기념관 건립등 선양사업도

신라의 신필(神筆) 김생(金生, 711~791)이 스님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왔다.

중국 명필 왕희지의 글씨를 능가하는 명필로 전해오는 김생. 예서, 행서, 초서에 뛰어났던 해동의 서성(書聖)으로 불리우는 그가 스님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김생이 스님이었다는 기록이 사실로 공식 확인된 곳은 바로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6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생사(金生寺)터다.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와 충주시(시장 이시중), 김생연구회(회장 손경주) 등이 힘을 모아 김생사지를 문화재로 지정,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에 나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주시는 김생사지가 지난해 12월 충북도 문화재(기념물 제114호)로 지정됨에 따라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달까지 지표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발굴조사에 들어



◇김생 영정

간다. 충주시는 7억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김생사지를 복원하고 김생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국민역사교육장으로 가꿀 계획이다.

명필 김생이 창건한 사찰이 있었던 김생사지는 황아리 형태의 석조물 1곽을 비롯해 주변지역 3,550평이 충북도 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생사지의 기념물 지정사유는 <수산집(修山集)>의 김생사중수기(金生寺重手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복진에(北津崖)~예성의 북쪽나무, 즉 현재 위치한 김생사지에서 두타행(頭陀行)을 닦았음이 고증된데 따른 것. 또한 발굴 당시 당초본 암각새의 완형이 발견됐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사찰의



◇김생연구회 손경주 회장이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김생사터에서 인근 민가 창고의 주춧돌로 사용중인 석축을 가리키고 있다.

경역사실이 입증되고 김생이 쌓았다고 전해진 김생제방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충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석조물은 방형석재(조석) 1매, 판석재 1매, 탑신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놓여있으며 건물외 동남쪽 기반부에 길이 12.4m, 높이 52~90cm의 석축이 있다. 김생이 종이에 쓴 글씨는 지금까지 전해 오지 않으나, 백불사 석당기, 창림비, 화엄사 화엄경석각, 유점사 판액 등 대부분 사찰의 비문과 액자에 적힌 글씨가 전해지고 있다.

충주시는 그동안 김생연구회와

함께 김생사지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집자비 건립, 선양동산 조성계획 수립, 김생사지 발굴 및 지표조사, 김생서적 발간 등을 추진해 왔었다. 김생 역사복원의 숨은 주역인 김생연구회 손경주 회장은 "김생은 청량사 경내의 김생굴(窟)에서 서도를 닦았고 김생사터에서 두타행을 닦은 스님이었기에 김생사가 복원되면 스님이 상주하게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불교계가 김생을 스님으로서 재조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43847-9227 김재경 기자 jgkm@buddhapa.com

## 충주 중앙탑 탑들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령리 신라 시대 중원 탑령리 7층 석탑인명 중앙탑, 국보 제6호 탑들이 행사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충주불교총연합회(회장 의천스님)와 중앙탑들이보존회(회장 이선복)는 14일 두 단체 공동주관으로 탑들이 행사를 갖고, 이 기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

중앙탑들이 행사는 지난 92년 남북통일 기원행사로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10회째, 특히 올해 행사에는 불교의 수행과정인 6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방편, 원, 려, 지를 포함한 10바라밀을 지역 불교계와 시민, 충주여성상과 충주상고 학생(350명),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60명) 등이 참여해 재연하게 된다.

두 단체는 탑들이 행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이를 전국 규모 또는 세계적인 행사로 승격시키고 영산대제와 국민화합 열린음악회, 생태계 보존방생, 유등제, 전통놀이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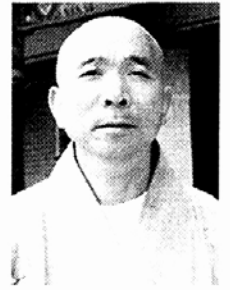
## 인드라마 13일 화엄광장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13일 오후 7시~이튿날 새벽 2시까지 문화교육관에서 '마음 다루기, 몸 다루기'를 주제로 제5차 화엄광장을 연다.

정해숙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공동대표(前 전교조위원장)를 좌장으로,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화엄광장에서는 유수스님(정토법당 원장)과 김열권(위빠사나 수행자) 서해란(화성 아미기시승 실현지) 송방호(한국자연치유학회 총연합회 부회장) 전재성(한국백암리서전협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02737-6181 김재경 기자

## 차암원 회장에 듣는다

# 50여 회원 사찰 '군포교' 한마음



제천불교연 회장 석구 스님

제천(정방사 주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천 불교계가 힘을 모아 제5 탄약창 군법당(60여명) 건립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수십만명의 장병 불자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수계식을 갖고 자대로 배치되고 있지만 정작 대대급 이하 부대에선 변변한 군법당이 없어 신병은 고사하고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제5 탄약창도 연대급 부대다 보니 창고를 법당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석구스님은 지역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법당 건립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법주사, 구인사 등의 지원과 지역 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직접 운역을 마다 않고 불사에 분주하다. 모두 20여 명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족할 경우 스님과 장병, 신도들이 직접 몸으로 법당을 완공하겠다는 원력이다.

39사단 산하 군법당에 대한 지원 및 포교활동과 함께 제천불교총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불사는 조계종에서 위탁 운영중인 제천장애인복지관과 진각종에서 위탁 운영중인 제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이다. 회원 사찰은 주로 후원활동을, 제천 불교신도연합회와 불교어머니회, 제천불교대학, 순천불자회, 불교청년회 등은 복지관에서 재가 장애인을 찾아 심부름, 청소 등의 가정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휠체어 봉사, 차량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번갈아 하고 있다.

이중 제천불교신도연합회는 매년 4월 청풍뫄꽃축제 행사장에서 유등법회를 열어 전통민속을 재연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돕기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체 법당까지 가진 제천불교어머니회는 지난 95년부터 매달 한차례씩 마을을 방문해 원생 목욕, 빨래, 공양준비, 주변청소 등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도들이 정성껏 자비행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스님들의 역할임을 강조하는 석구스님은 "군법당 건립은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열리는 무료급식과 목욕봉사 등의 활동 등이 불자들의 참여속에 원만히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김재경 기자

## 백두대간 '종교문화환경' 첫 조사

불교환경연대 22~26일

백두대간에 자리한 사찰과 그 주변 지역의 생태·문화·종교환경에 대한 조사가 불교환경연대에 의해 이달 하순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개별 사찰에 대한 생태 및 문화환경 조사는 여러번 실시되었지만 백두대간 내 일정지역 사찰을 묶어 자연생태 및 수행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22~26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역의 생태, 문화, 종교환경에 대한 1차 조사가 나선다. 이번이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백담사 신홍사 낙산사 건봉사 봉정암 등 13개 사찰이 포함된 설악산 구역, 월정사 낙가사 대원사 등 6개 사찰이 들어있는 오대산 구역, 유일사 영은사 등 5개 사찰이 위치한 태백산 구역 등 3개 지역. 조사항목은 대상지역의 경관, 토지

이용 및 훼손실태와 동 식물 식생 및 분포, 수행환경 훼손 실태, 불사 현황 및 계획, 사하촌 환경과 사제, 지질 및 지형 구조 파악 등이며 사진 촬영, 도표 작성, 여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생태분야 전문가, 산악인, 풍수전문가, 종교문화학자, 환경활동가, 자원활동가 등 30여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 내원정사 유치원 가족운동회

부산 내원정사 유치원(원장 정란)은 9월 27일 구덕 아영장에서 제14회 내원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에 참석한 13개반 580여명의 원아들과 학부모 등 1천여명은 '우리 강산 푸르게' 환경 마스게임,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 꽃가마 행사, 전래 동요놀이 등의 전체 경기를 통해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지하철 게시판 '자비의 말씀' 책으로 묶다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책으로 엮어졌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이사 성은는 최근 전국 지하철역 1천 3백여 개소에 게시됐던 60여 편의 글과 전각 작품을 모아 단행본 <풍경소리>를 펴냈다.

의 전각 작품으로 처리해 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했고,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해 있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풍경소리는 99년 7월 지하철 포교를 시작한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역에 자비의 말씀을 게시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오종욱 기자

##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운문사, 봉녕사, 봉암사, 용운사, 용수사, 청주 수도원, 부산해운정사, 한미음선원 대구지원, 한아음선원 외...

## 합동석물(주) 대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 054)955-8200~1 · FAX : 054)955-8202 · 휴대폰 : 011)509-144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할아버지께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치사의 효력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성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력이 있다.

확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佛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號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서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